국립한국문학관 짓고 문학인 양성한다

■ 윤곽 드러낸 '문학진흥법'

문학관, 481억 투입 2019년 완공 고전~근대 자료 망라

지역 단체들 "문학 자산 풍부한 남도에 문학관 들어서야"

지난달 31일 국회를 통과한 문학계의 오랜 숙원인 문학진흥법의 윤곽이 점차 드러나고 있다.

시인인 도종환 의원(더불어 민주당)은 12일 설명회를 열어 문학진흥법을 개괄적으로 설명했다. 도 의원이 대표 발의했던 문학진흥법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5년마다 '문학진흥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며, 국립한국문학관 설립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학진흥법에 따라 5년마다 문학진흥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여기에는 문학 전문인력 양성, 창작 활성화, 문학 교육 등에 대한 구상이 담겨 있다. 이밖에 문학진흥법은 문학진흥정책위원회 구성, 한국문학번역원 조항 이관 등을 담고 있다. 특히 문학진흥정책위원회를 통한 체계적인 계획 수립과 지원 체계 구축, 문학 향유를 위한 문학 교육, 문학관 지원을 통한 활성화 등이 골자다.

한국문학번역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문학진흥법으로 옮겨온 것도 눈에 띈다. 번역원은 한국 문학의 세계화를 위해 만든 기관이지만, 그동안 출판 산업을 진흥하기 위한 '출판문화산업진흥법'안에 설립, 지원에 대한 근거가 있어 문제로 제기되기도 했다.

이 가운데 예산 481억이 투입되는 국립한국문학관은 문학진흥법의 핵심이다. 이번에 설립되는 문학관은 고전부터 근대까지 문학 자료를 망라한다는 점에서 '국립한국문학관'(이하 한국문학관)으로 명칭이 최종 확정됐다. 한국문학관은 도서관, 박물관 형태로 건립되며 이곳에는 한국문학과 관련된 기록 등이 보관, 전시된다.

지난달 31일 통과한 문학진흥법은 국립한국문학관 설립뿐 아니라 문학 계획 수립과 창작 활성화, 문학 교육을 위한 문학진흥기본계획 등이 담겨 있다. 사진은 문학 창작과 교육 위주로 활동이 이루어지는 담양 생오지문예창작촌. /김진수기자 jeans@

도 의원은 "국립중앙박물관, 국립현대미술관 등 주요 문화콘텐츠의 국립 시설이 있지만 문학 유산을 총체적으로 수집하고, 보존, 관리, 교육하는 시설은 전무하다시피 했다"면서 "러시아와 일본, 중국 등도 50여 년 전부터 국립문학관을 건립해 운영해오고 있다"고 밝혔다.

문학 자료 실태 조사를 위해 '근대문학정보센터'가 재작년 출범한 상태다. 건립 방향 등을 위한 토론회와 연구 용역도 실시됐고 문화체육관광부는 올 상반기까지 부지를 선정, 오는 2019년 문학관을 완공한다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이에 따라 각 지자체의 한국문학관 유치전이 뜨거워질 전망이다. 파주시가 한국문학관 유치에 나선 가운데 강원, 충북 등지에서도 유치 주장이 잇따르고 있다. 세계 수준의 출판단지를 보유하고 있는 파주시는 문화계 인사를 중심으로 유치위원회를 발족해 공모에 응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에 비해 아직까지 광주 전남 지자체에서는 유치에 대한 이렇다 할 주장이나 움직임 등은 없다. 문향(文鄕)으로 일컬을 만큼 많은 작가와 시인들을 배출한 광주와 전남에 한국문학관이 건립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지역 문학단체들을 중심으로 간간히 흘러나오는 정도다.

광주전남작가회의 조진태 회장은 "우선 문학계의 숙원인 문학진흥법 통과를 환영한다. 그동안 문화예술 분야에서 문학 부분이 가장 소외돼 있었던 게 사실이다. 배제돼 있었다고 해도 무방할 만큼 문학에 대한 제도적 기반이 전무했다"고 말했다.

이어 조 회장은 "광주와 전남은 문학의 역사성과 맥락의 관점에서 볼 때 한국문학관이 들어서기에 최적의 지역"이라면서 "문학단체와 지자체가 역량을 집중해 유치에 도전해보는 것도 고려할 만하다"고 강조했다.

박형동 전남문인협회 회장도 "장성의 홍길동전, 곡성의 심청전, 목포의 근대 문학 등 전남에는 고전과 근대의 문학작품들이 다수 산재한다. 한국문학관이 전남에 건립될 수 있는 근거가 적지 않다"고 밝혔다.

이밖에 문학인들은 문학진흥법 제정으로 창작 활성화와 문학인들의 복지가 개선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송광룡 문학들 대표는 "문학진흥법은 공급자가 아닌 수요자 중심으로 제정되고 시행되어야 한다"면서도 "향후 문화예술 행정에 있어 문학부분도 타 장르와 비교해 주변부가 아닌 최소한 동등한 지위로 자리매김 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성천기자skypark@kwangju.co.kr

광주, 2030년까지 시민 중심 문화주권도시 조성

광주문화재단 중장기 계획 발표

광주가 오는 2030년까지 시민이 중심이 되는 '문화주권도시'로 조성된다.

광주문화재단은 12일 오후 광주문화재단에 열린 창립 5주년 기념식에서 이같은 비전을 담은 '광주문화발전 중장기 기본계획 2030'(이하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기본계획은 '문화로 풍요로운 광주, 예술로 아름다운 시민'을 비전으로 문화예술의 가치를 현실화하고 시민의 삶이 아름다워진다는 의미를 담았다.

비전 실현을 위한 3대 핵심목표로는 미래형 문화교류도시, 품격 있는 문화예술도시, 시민중심 문화주권도시를 제시했다.

미래형 문화교류도시를 위해 ▲ 도시 간 문화연대 강화 ▲ 문화예술 사회적 기업 확산 ▲ 창조인력 양성 등을 추진한다. 광주를 품격있는 문화예술도시로 만들기 위해 개방과 융합, 창조를 주요 가치로 창조적 문화공간 확대를 지향한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광주문화재단 창립 5주년 기념식이 12일 오후 재단 1층 갤러리에서 열렸다. 기념식 부대행사로 문화경매 '오늘은 우리가 보둠어 드림'이 진행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박진현의 문화카페

두려움을 잊는 '청춘'들에게

지난 주말 관람한 영화 한편의 여운이 가시지 않는다. '그레이트 뷰티'(2013년 작)로 잘 알려진 이탈리아 파울로 소렌티노 감독의 '유스'(Youth)다. 다양성 영화이다 보니 상영관이 많지 않아 난생 처음 오전 9시 상영시간에 맞추느라 바쁜 주말 아침을 보냈다.

영화의 줄거리는 이렇다. 팔순에 가까운 작곡가이자 지휘자인 프레드(마이클 케인 분)와 영화 감독인 믹(하비 케이틀)이 스위스의 고급 호텔에 머물면서 휴가를 보내는 이야기다. 삶의 종착역에 다다른 영화 속 두 노장의 일상은 평범하다 못해 무료하기 짝이 없다. 한적한 숲길을 거닐며 처음 자전거를 배웠던 유년의 기억이나 첫 사랑의 상대를 두고 '사랑과 우정사이'에서 고민했던 일, 소변을 제대로 보지 못해 불행한 요즘까지 어느 것 하나 특별하지도 않는 시시콜콜한 내용들이다.

하지만 '나이듦'에 대한 두 예술가의 자세는 사뭇 다르다. 프레드가 은퇴를 고민하고 있는 데 반해 믹은 마지막 역작을 남기기 위해 의욕을 불태운다. 하지만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은 프레드에게 영실 왕실로부터 그의 대표작 '심플송'을 여왕 앞에서 연주해달라는 제안이 들어오고, 촬영을 앞둔 믹에게는 주연을 의뢰한 인기배우 브렌다(제인 폰다)가 출연을 거절하면서 밋밋했던 그들의 일상은 일대 변화를 맞게 된다.

여기에 할리우드 스타인 배우 지미, 왕년의 마라도나를 연상케하는 은퇴한 축구스타, 이별의 아픔을 겪는 프레드의 딸 레냐 등 다양한 등장인물의 고민과 갈등, 그리고 치유의 과정이 수려한 스위스의 자연풍광과 어우러져 잔잔한 감동을 안겨준다.

무엇보다도 영화의 백미는 삶을 통찰하는 철학적인 대사들이다. 어느덧 팔순을 바라보게 된 두 거장이 "나이를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 모른채 시간이 흘렀네"라며 회한에 잠기거나 믹이 청춘과 노년을 망원경과 빗대며 "젊었을 때는 미래만 보지만 나이가 들었을때는 과거만을 생각한다"며 자신의 스태프들에게 던지는 충고는 묵직하다.

개인적으론 할리우드 배우 지미의 고백이 가슴에 와 박혔다. 크랭크 인을 앞둔 새 영화에서 히틀러 역을 제안 받은 그는 캐릭터를 '잡느라' 고민에 빠진 인물이다. 수많은 영화에 출연한 스타이지만 만나는 사람마다 로봇 연기를 맡았던 '미스터 큐'만 기억하는 것이 속상한 그는 우연히 호텔에서 만난 소녀로부터 자신감을 얻고 그동안 망설였던 히틀러 연기에 도전한다.

소녀가 던진 말은 오래전 단편영화에서 그가 상대방에게 건넨 "준비되어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대사였다. 이튿날, 히틀러 복장을 한 채 호텔 식당에서 마주한 프레드에게 그는 이렇게 소리친다. "그동안 시도해보지도 않고 두려움으로 아까운 시간들을 허비한 내 자신이 너무 부끄럽고 화가 난다."

이처럼 '유스'는 보는 사람의 나이와 '상황'에 따라 감동의 지점이 다르다. 하지만 분명한 건 새로움에 대한 두려움을 떨치고 첫발을 내딛는 사람만이 영원한 젊음을 누린다는 메시지다. 새로운 한해, 이보다 더 우리를 설레이게 하는 덕담이 있을까?

〈편집부국장·문화선임기자〉

전남대 BK21 사업단, 해외 석학 초청 강연

전남대 BK21 지역어기반 사업단(단장 신해진 ·국어국문학과 교수)이 13일(오후 3시) 인문대학 2호관 교수회의실(408호)에서 '제7회 해외석학 초청 강연회'를 개최한다.

'언어의 상품화'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강연회의 초청 강사는 싱가포르 국립대학 영어영문학과 박성열 교수다. 이번 강연회에서 박성열 교수는 자본주의 사회와 언어의 상품적 가치를 비판적인 안목으로 들려줄 예정이다. 또한 사회언어학의 관점에서 언어의 상품화를 어떻게 이해하고 비판할 수 있을지 고찰하고 언어상품화의 사례를 토대로 이론적 틀을 탐색한다.

한편 박 교수는 서울대학교 기계공학과를 졸업하고, 캘리포니아 대학에서 언어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문의 010-2337-4810.

/박성천기자skypark@kwangju.co.kr